

사회

해남 필리핀 신부 한이주씨 가족의 설맞이

“5남매와 먹는 떡국 최고의 행복...타국살이 잊었죠”

설(23일)을 나흘 앞둔 19일, 5명의 아이와 엄마 아빠가 식탁 앞에 웅크려 앉아...

아이들 세뱃돈 받으러 큰댁 방문 손꼽아 기다려 메주 만들고 장 담그는 '한국 아줌마' 다 됐죠



설을 나흘 앞둔 19일 다문화가정인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김행단·한이주씨 부부가 다섯 자녀와 함께 설에 쓰일 가래떡을 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살고 있는 13년차 필리핀 이주여성 한이주(39·3년전 귀화)씨는 5남매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타향살이를 버텨왔다.

큰딸 조선(10), 책에 파묻혀 사는 부선(9), 해맑은 정선(4)이와 영일(3)이를 한 번에 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한씨의 남편 김행단(49)씨는 이들 5남매가 짝을 찾아 며느리와 사위,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찾아올 설을 고대하고 있다.

김씨는 “셋째 부선이를 낳은 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려워도 나중에는 더 행복할 것이라며 반대해 다섯째까지 낳게 됐다”며 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씨 가족은 예전과 같이 올해도 장흥에 있는 김씨의 큰 형님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씨의 형남과 동생 등 3남2녀의 형제에, 김씨의 5남매와 조카들까지 30여명이 북적거리는 ‘대가족의 설’은 언제나 가슴을

부풀게 한다.

큰딸 조선(10)은 큰 아버지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것은 큰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는 세뱃돈이다. 조선은 핸드폰을 꼭 사고 싶고, 막내 영일은 빵을 마음껏 사먹고 싶단다. 둘째 익선은 친척 언니·누나들과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독서골든벨에서 금상을 탈 정도로 독서광인 부선이는 세뱃돈으로 큰 서점에 책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마음에 설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한국땅을 밟았을 때 명절에 부담을 느꼈던 한씨도 이제 명절이 문턱까지 다가오면 ‘한국 아줌마’가 됐다. 김씨는 “5남매가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지난해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

고 있는 아내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다”고 귀띔했다.

한씨는 또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가보지 못한 필리핀 고향에 5남매의 손을 잡고 찾아가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나원침 (8486) 김종두



택시기사 화장실 가자 승객이 차 훔쳐 달아나

목포경찰, 2명 붙잡아 20대 택시 승객 2명이 기사가 화장실에 들른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추적을 받은 경찰에 걸려왔다.

목포경찰은 19일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22), 정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박모(44)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내려오다 군산 휴게소에서 박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께 목포시 산정동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를 5km 가량 추격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서 가위와 밧줄이 나와 택시 강도를 모의한 것이 아닌가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무면허 운전 버릇 뒀고친 60대 교도소형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60대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교도소형”

○“순천보호관찰소는 19일 읍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보호관찰을 선고 받고도 또 무면허운전을 한 조모(65)씨를 긴급구인, 교소도에 수감”

○“조씨는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지난 18일 순천시내에서 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경찰, 일진회 색출 나섰다

공원서 음주·흡연 청소년 중점 단속

4월까지 학교폭력 근절

경찰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회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나선다.

광주·전남 지방경찰청은 19일 “계학을 앞두고 오는 4월30일까지 3개월 여간 학교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의 주된 가해자인 일진회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을 벌이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공원, 놀이터, 공터, 야산 등 우범지역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삼지만 정도가 심하면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음주·흡연 중 폭행이나 급몰취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폭력 신고 채널인 ‘117 전화’나 ‘안전Dream’ 포털에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학교 측과 정보공유를 통해 상습적인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고등학교 일진회 의 경우 성인 조직 폭력과 연관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졸업생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벌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로 준비 등 명목

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등이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담당 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보복 폭행을 막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선 때 대의원에 금품 제공

김문일 한나라 도당위원장 구속

광주지검, 300만원 전달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1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나라당 전남도당 김문일(65) 위원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식당에서 유세본부장 한모(59)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지역 대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돈을 받은 한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 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천 후보 측은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도당 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왕따 당했다 보복해 달라”

후배 친구 폭행 10대 영장

여수경찰은 19일 후배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1일 여수시 화장동의 한 주차장에서 후배 친구인 B(16)군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후배가 4년 전 B군으로부터 왕따를 받았다고 보복해 달라고 부탁하자 친구 3명과 함께 집단으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한 A군의 친구 3명은 모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군이 학교를 중퇴하고 PC방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학교폭력 은폐 교사·교장 엄중 조치”

이주호 장관,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마련

앞으로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나 교장을 엄중 조치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실효성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도 법정부 차원에서 시작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 등 세 그룹에 의존하는 학교폭력 해결에 교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좋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사가 너무 힘들어지게 해서는 안되고 지원시스템도 많이 강구하겠지만 체제가 갖춰지고 나면 교사의 기본 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한다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묻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숨길 경우 성폭력·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다만 폭력 사안별로 은폐·은닉 여부에 대해 시비가 일 수 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시점부터는 교사의 개입이 차단되는 점 등 현행 하겠지만 체제가 갖춰지고 나면 교사의 기본 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연평뉴스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Table with 3 columns: 재수, vs, 편입. Rows include 1학년입학/4년재학 vs 졸업시기, and 고등교과목 전과목(약 16과목) vs 준비과목.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2월1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